



자산전략 주간 포인트 시즌 2.

8월 둘째 주 《지나쳤던 공포》

SK증권 자산전략부

채권전략. 윤원태 3773-8919, yunwt@sk.co.kr
주식전략. 강재현 3773-9922, jaehyun.kang@sk.co.kr
퀀트전략. 황지우 3773-8072, jeewoo.hwang@sk.co.kr
경제환율. 류진이 3773-9226, jinleecon@sk.co.kr
R.A. 박유진 3773-9938, youjin.park@sk.co.kr
R.A. 원유승 3773-9181, ys.won@sk.co.kr

SUN MON TUE WED THU FRI SAT



- 1 자산시장 Point to Point
- 2 그림으로 보는 Top to Bottom
- 3 주간 Check Point

Compliance Notice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경제/금리 갑자기 다가온 R의 공포, 시장이 한 번쯤 우려할 만하나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판단

-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주 시장을 장악한 것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7월 ISM 제조업지수와 고용지표 쇼크가 침체 우려를 자극하기 시작
- 당사는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단, 하반기는 단기적인 경기변동 흐름으로는 성장률이 소폭 둔화되는 하강 국면을 지날 것으로 예상. 이는 침체가 아닌 성장률의 둔화일 뿐, 9월 인하 개시 이후 심리지표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내년초부터는 인하의 효과로 경기는 재차 상승 국면으로 옮겨질 수 있을 것. 참고로 침체는 기술적으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상황을 의미
- 다음주는 미국 소비자물가와 소매판매 발표가 예정되어 있음. 현재는 'Bad is Bad' 국면인 만큼 물가를 포함한 주요 경제지표들이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해야만 단기적으로 침체에 대한 우려도 덜어질 수 있을 것
- 다만 하반기, 특히 3분기는 상반기 대비 지표들이 대체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향후 경제 전망 불확실성 확대 및 대선을 앞둔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심리가 부진한 가운데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며 수요도 다소 둔화될 것이기 때문. 실업률 상승세도 투자심리에 부담으로 남아 있음.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으나 이러한 우려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 들쭉날쭉한 지표들 사이에서 침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

주식 전략 침체가 아닐 것이고 이미 시장도 그렇게 판단하기 시작했다면 사야 하지 않을까

- 최근 글로벌 증시 급락은 지난 6월의 불편한 상승에서부터 시작된 것. 이 때 주요국 경제지표가 생각보다 부진하면서 금융시장 위험 선호 심리가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T 중심의 쓸림이 발생하면서 증시 상승. 그리고 이후 글로벌 IT 매수 트레이딩과 페어로 추정되는 엔 매도 논리가 약화되면서 증시는 불편한 상승 분 이상을 뺐어 냈음. 특히 그 과정에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더해진 것이 엔화 강세를 더욱 부추겼고 극단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분위기가 연출되며 주식시장에서 패닉셀 현상 발생
- 그러나 지난 7월 Market Outlook에서부터 강조해 오고 있듯이 현재 미국 경제가 침체로 접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며, 그렇기에 최근 침체 걱정으로 인해 글로벌 증시 조정 강도가 높아졌던 것은 과도했다는 생각. 이미 미국 7월 ISM 서비스업 지수,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발표되며 이러한 우려는 완화되는 과정에 접어들었음. BOJ 구두개입으로 엔화 강세도 진정 중. 더불어 9월 이후에는 인하 시작으로 인한 실질적 경기 모멘텀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기에 지금의 낮아져 있는 주식시장 레벨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



Part 1.

자산시장
Point to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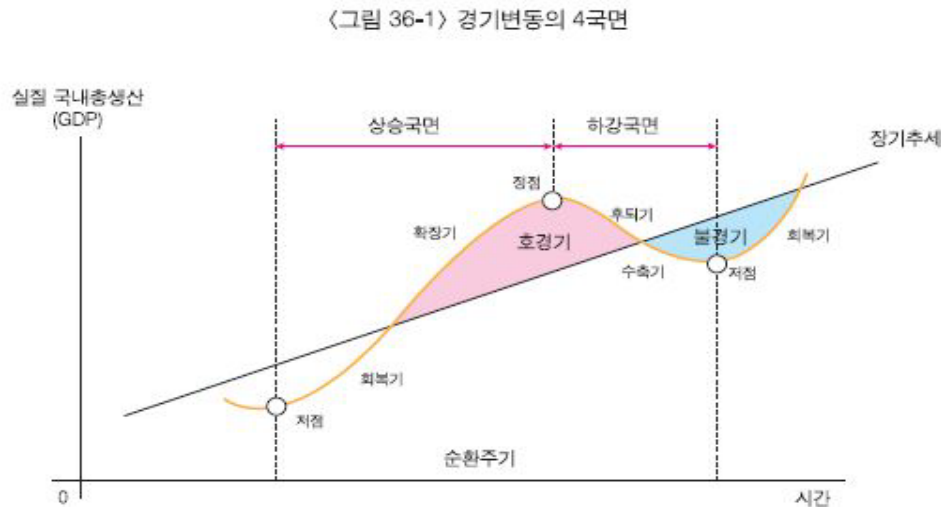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하반기 경기 소폭 둔화는 yes, 침체는 no

● 침체의 기술적 정의 = 성장률이 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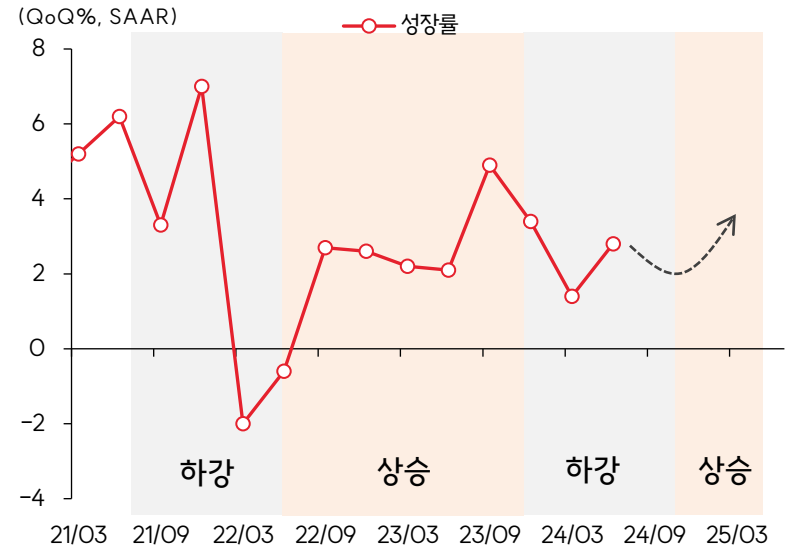
- 경기 국면으로 판단해보면, 올해 하반기는 단기적인 경기변동 내 상승국면에서 하강국면으로 전환되는 시점. 2분기가 미국 성장률의 올해 고점이라고 판단. 이유는 소비와 투자 모두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 하방 압력 커질 것이기 때문.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놓기는 어려울 것
- 다만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실업률이 상승하기는 하나 해고 급증에 따른 급격한 고용시장 냉각이 아니며 인플레이션 둔화가 동반되며 실질 소득 감소 폭도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 이는 소비 절벽 발생 가능성은 낮추는 요인임
- 더불어 9월부터 시작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4분기 대선으로 정책 불확실성 해소된다면 하반기 주춤할 투자 부문도 회복될 수 있음. 인하 이후의 주택 경기 회복은 소비와 투자 모두에 긍정적 재료가 될 것. 결국 금년말에서 내년 상반기 경기는 침체로 진입하기 보다 소폭 둔화 후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고 판단

경기변동의 4국면



※ 출처 : 한국은행,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미국은 단기 하강국면, 단 연착륙 이후 내년 상반기 반등 전망



자료 : Bloomberg, CEIC, SK증권

NBER 경기 판단 지표는 침체가 아니라고 말한다

NBER의 경기침체 판단 지표 - 현재는 경기 침체가 아니다, 향후 발생 가능성은 미지수

기간	(전분기 대비 변화, 천명)		(YoY, %)				(QoQ연율)		역성장 지표 개수
	비농업 고용	고용수준	산업생산	실질 제조업/ 무역업 매출	실질개인소득	실질개인지출	실질GDP	실질GNI	
1Q20	112.0	(1159.7)	(2.7)	(2.4)	1.9	1.5	(5.3)	(2.4)	5
2Q20	(18045.3)	(19959.0)	(14.6)	(9.0)	(3.6)	0.5	(28.0)	(30.5)	7
3Q20	6906.0	8686.3	(6.6)	0.6	0.2	1.1	34.8	28.9	1
4Q20	1979.3	3710.0	(4.6)	3.2	2.1	1.2	4.2	15.3	1
1Q21	953.7	255.0	(2.7)	6.9	1.4	2.1	5.2	3.1	1
2Q21	1608.7	1233.3	13.3	15.7	9.0	4.1	6.2	4.6	0
3Q21	2078.0	1883.7	4.3	4.4	5.2	4.7	3.3	3.6	0
4Q21	1944.3	2056.0	3.8	3.8	2.8	5.9	7.0	6.2	0
1Q22	1578.0	2225.7	4.5	1.3	1.7	6.6	(2.0)	0.5	1
2Q22	1219.3	501.7	3.9	(0.9)	(0.6)	6.8	(0.6)	(0.0)	4
3Q22	1312.3	538.7	3.6	(0.4)	(0.4)	6.6	2.7	2.7	2
4Q22	829.3	193.3	1.8	(1.1)	(0.8)	5.9	2.6	(3.0)	3
1Q23	898.7	1587.7	0.9	(0.3)	1.1	5.0	2.2	0.5	1
2Q23	753.0	465.3	(0.0)	1.0	2.2	3.9	2.1	0.5	1
3Q23	667.0	528.7	(0.1)	1.5	1.9	3.3	4.9	1.9	1
4Q23	617.0	23.3	(0.1)	1.9	2.5	2.8	3.4	3.6	1
1Q24	770.7	(247.7)	(0.6)	1.2	2.0	2.6	1.4	1.3	2
2Q24	597.0	62.3	0.4		1.7	2.6	2.8		0

자료 : FRED, SK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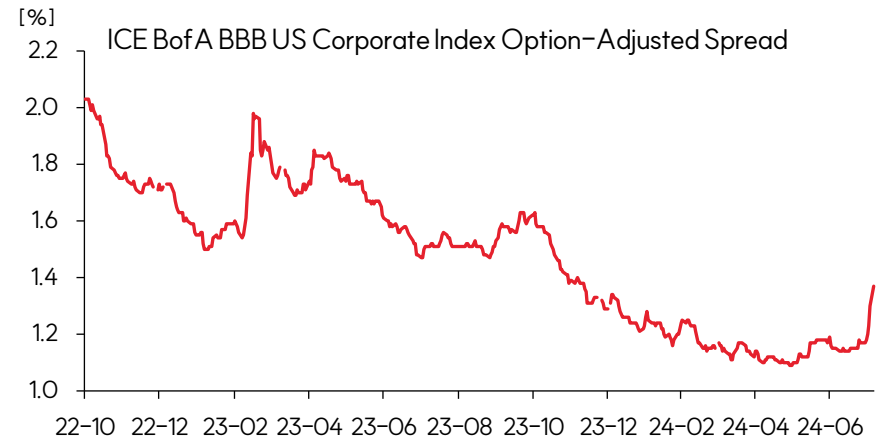
● 지금까지 경기 지표는 침체가 아니라고 한다

-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은 +2.8%이며 3분기 GDPNow 예상치도 +2.9% 수준. 아직 역성장 가능성 낮음
- NBER은 8가지 주요 데이터들 중 절반 이상이 2분기 연속 역성장할 경우 침체를 선언해 왔으나 올해 1~2분기 역성장한 지표는 굉장히 적음

●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하는 채권시장. 과도한 우려로 판단

- 채권시장은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반영하며 시장금리 하락,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 움직임을 보임

최근 미국 하이일드 스프레드 상승했으나 수급여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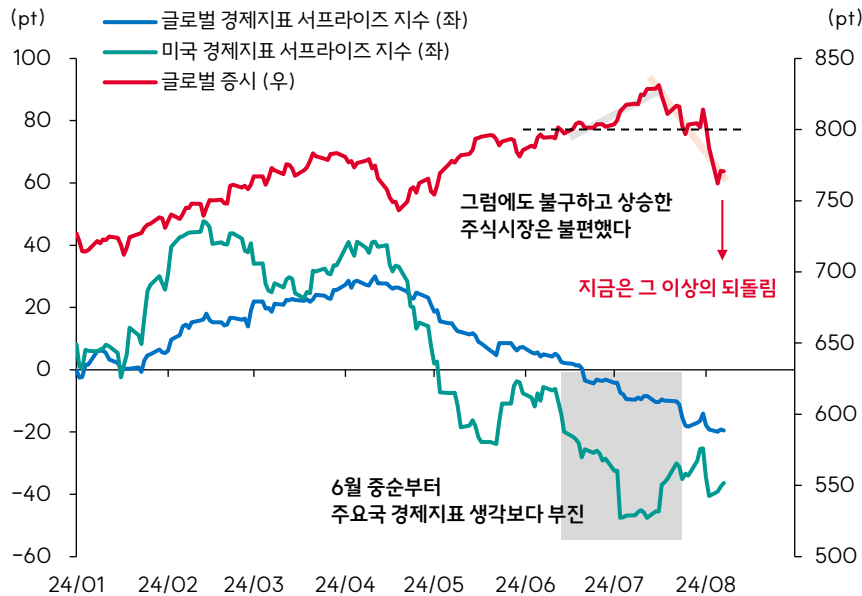


자료 : FRED, SK증권

침체 우려 이미 완화중이라면 매수해야 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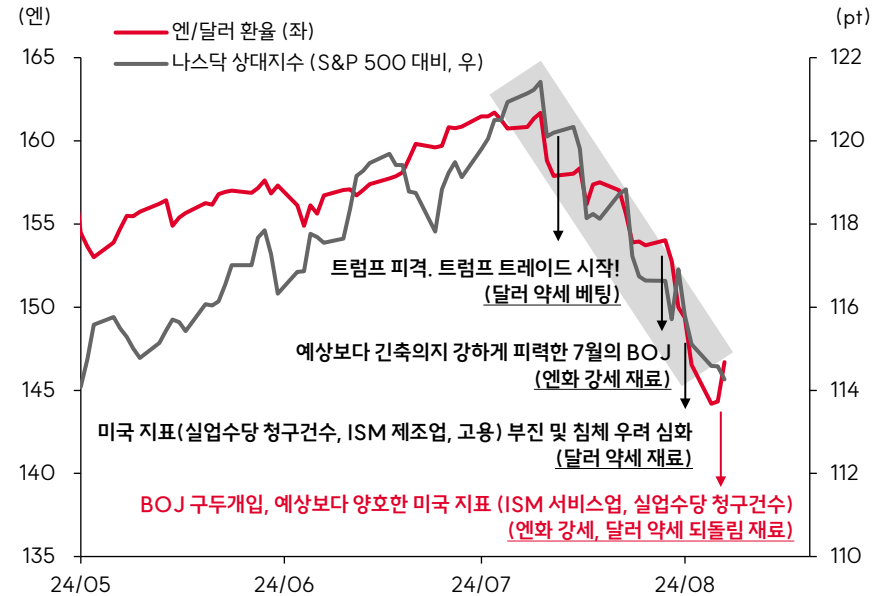
- 미국 침체 걱정이 과도한 엔화 강세, 증시 약세를 야기했다면, 우려가 빠르게 완화되고 있는 지금은 다시 주식을 사야 할 때
 - 최근 글로벌 증시 급락은 지난 6월의 불편한 상승에서부터 시작된 것. 이 때 주요국 경제지표가 생각보다 부진하면서 금융시장 위험 선호 심리가 약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IT 중심의 쏠림이 발생하면서 증시 상승. 그리고 이후 글로벌 IT 매수 트레이딩과 페어로 추정되는 엔 매도 논리가 약화되면서 증시는 불편한 상승 분 이상을 뺐어 냈음. 특히 그 과정에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더해진 것이 엔화 강세를 더욱 부추겼고 극단적으로 위험을 회피하는 분위기가 연출되며 주식시장에서 패닉셀 현상 발생
 -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경기 침체 우려는 매우 과도하며, 이미 미국 ISM 서비스업 지수,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발표되며 이러한 우려는 완화되는 과정에 접어들었음. BOJ 구두개입으로 엔화 강세도 진정 중. 9월 이후에는 인하 시작으로 인한 실질적 경기 모멘텀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보기에 지금의 낮아져 있는 주식시장 레벨은 매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

6월~7월 초 불편했던 상승 분 그 이상을 뺐어 낸 주식시장



자료 : Refinitiv, SK증권

엔 매도 - IT 매수 로직 약해진 영향도 있었을 것. 지금은 다시 엔 매수 로직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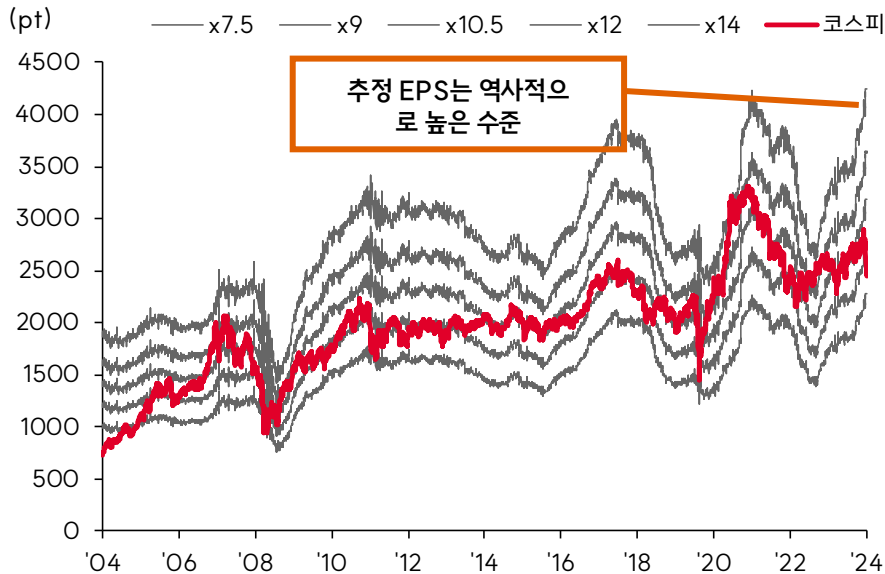
자료 : Refinitiv, SK증권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레벨

● 근래 주요 약세장 시기의 하단 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

- FWD EPS 기준으로 약 9배 밑으로 내려간 것은 주요 위기 기간들이며 현재(8.5배)의 낙폭이 과대해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한편으로 FWD EPS가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 EPS 기준으로 최근 20년동안 가장 높게 추정되고 있으며 추정치 조정 시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도 상승할 것
- 선행 이익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하락장에서는 보통 Trailing P/B로 바닥을 가늠하고는 하는데, 현재는 충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보임
- 근래 약세장이었던 2019년, 2022년과 2023년의 바닥은 약 0.83배 수준이며, 현재 증시는 0.92배 (월요일 종가 0.87배)
- 0.83배까지 하락한다고 가정한다면 코스피는 2330pt까지 하락해야 하는데, 시장 환경이 2022년/2023년 보다는 양호하다고 판단한다면 현재 수준도 충분히 낮으며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음. 다만 추세가 꺾여 있기 때문에 “언제”라는 문제는 상존

Forward PER은 더 매력적이지만, 추정 EPS라는 한계점 존재



자료 : Quantwise, SK증권

코로나를 제외한 근래 약세장의 하단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의 Trailing PBR



자료 : Quantwise, SK증권



Part 2.

**그림으로 보는
Top to Bottom**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Macro Core 3 Point

- **Core Point 1: 미국 7월 ISM 서비스업 PMI, 침체 공포에 빠졌던 시장 안정시켜**
 - 미국 7월 ISM 서비스업 PMI, 51.4pt로 예상(51.0) 및 전월(48.8) 상회. 한달 만에 다시 50을 넘어 확장 국면으로 전환. 기업활동, 신규주문, 고용 등 다수 핵심지표도 확장 국면 전환. 앞선 제조업 지표 하회 및 고용보고서 쇼크로 발생한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 완화됨
- **Core Point 2: 글로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에 BOJ,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 시사**
 -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에 의해 글로벌 주식 시장이 급락했던 블랙 먼데이 이후, 일본은행(BOJ) 우치다 신이치 부총재는 7일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 서는 금리 인상 없을 것'이라 발언해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 시사. 경기 침체 및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에 빠졌던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
- **Core Point 3: 중국 7월 수출, 예상 하회하며 중국 경기 우려 확대**
 - 중국 7월 수출, +7.0%로 예상(+9.4%) 및 전월(8.6) 크게 하회해 경기 우려 확대. 다만 수입이 대폭 증가한 것은 내수 진작 신호로도 볼 수 있어

Core Point 1

	24/05	24/06	24/07	전월 대비
ISM 서비스업 PMI	53.8	48.8	51.4	↑
1. 기업활동지수	61.2	49.6	54.5	↑
2. 신규주문지수	54.1	47.3	52.4	↑
3. 고용지수	47.1	46.1	51.1	↑
4. 공급자 운송시간지수	52.7	52.2	47.6	↓
5. 재고지수	52.1	42.9	49.8	↑
1) 수출주문지수	61.8	51.7	58.5	↑
2) 수입지수	42.8	44.0	53.3	↑
3) 수주잔량지수	50.8	44.0	50.6	↑
4) 지불가격지수	58.1	56.3	57.0	↑

자료 : Bloomberg, SK증권

Core Poin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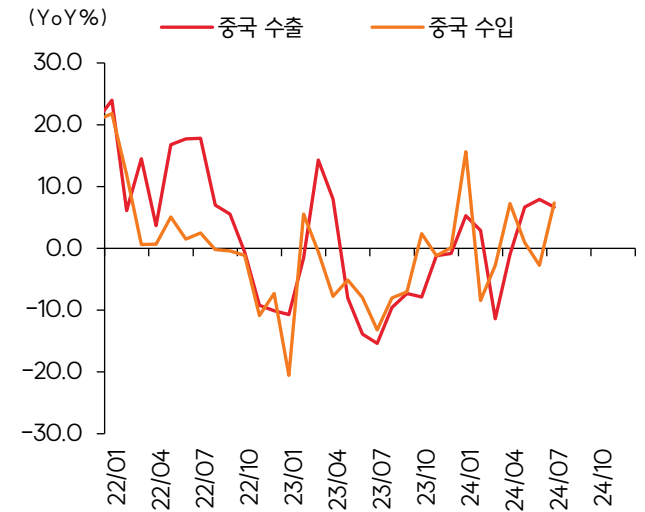
BOJ,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 시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 안정

자료 : 언론 종합, SK증권

Core Poin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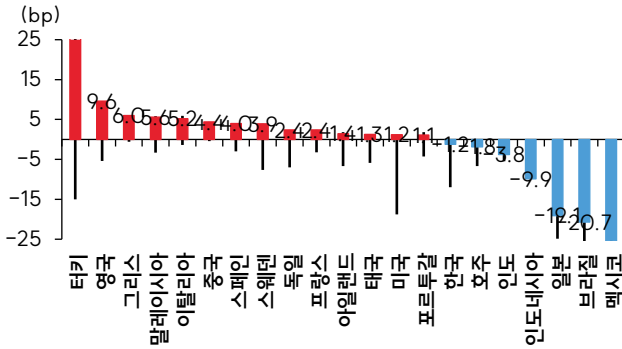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SK증권

2. FICC Core 3 Point

- 주간 글로벌 금리는 하락.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7월 고용보고서 쇼크 등 경기 침체 우려 발생 후 30bp 이상 급락세 보였으나 이후 반등해 3.99% 기록
- 유가는 주초 경기 침체 우려로 급락해 73달러를 하회하기도 했으나, 이후 이라크 미군기지 피격 등 중동 리스크 확대로 낙폭 회복해 70달러 중반대 기록
- 환율은 주초 경기 침체 우려 및 엔화 강세 연동에 1350원대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위험 회피에 따른 외인 매도에 약세 보이며 1370원 후반대 기록

금리

1) 글로벌 금리 주간 상승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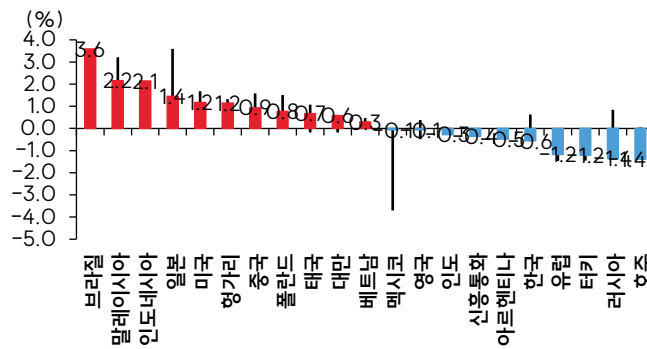
2)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자료 : Bloomberg, SK증권

환율

1) 글로벌 달러대비 주간 절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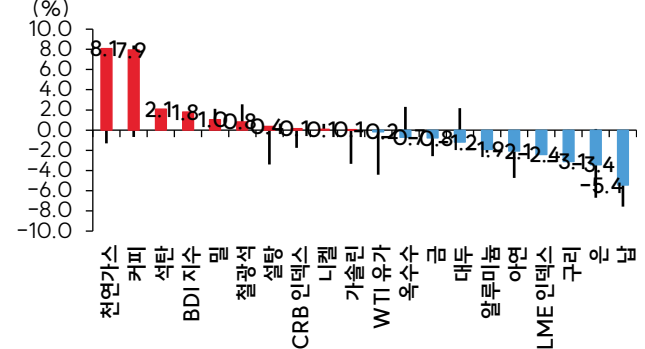
2) 원달러 환율 및 달러 인덱스 추이



자료 : Bloomberg, SK증권

원자재

1) 주요 원자재 주간 상승률



2) 국제유가 변동(WTI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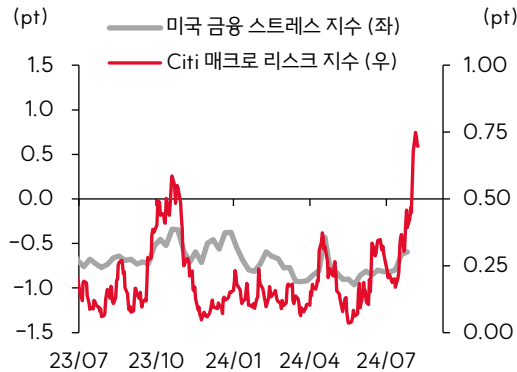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SK증권

3. 위험과 자산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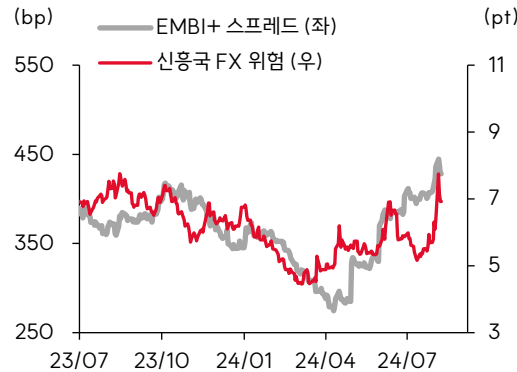
- 매크로 리스크 지수는 작년 3월 미국 은행 위기 발발 당시 보다 높은 수준 기록 중. 금융시장 변동성 급격히 확대되었고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며 위험 높아지는 양상. 신용국 위험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작년 5월 수준에 근접
- 이번에는 크레딧 스프레드도 급등.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0월 인상 지속 당시 미국 재정 위험 확대되었을 때보다는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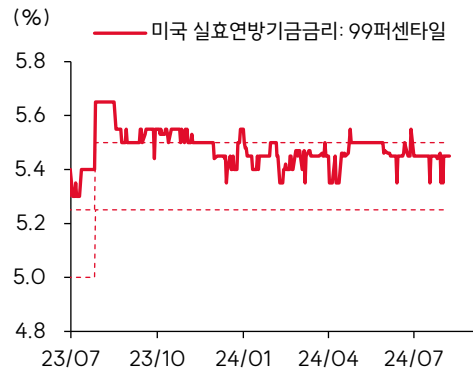
(1)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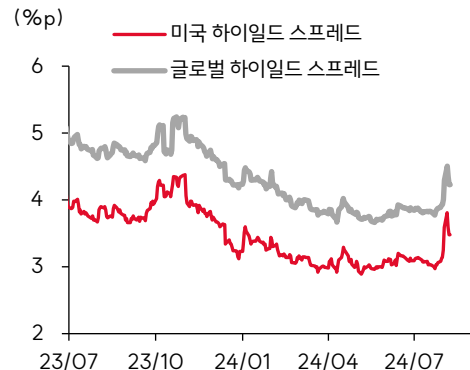
(2) 신용국



(3) 단기자금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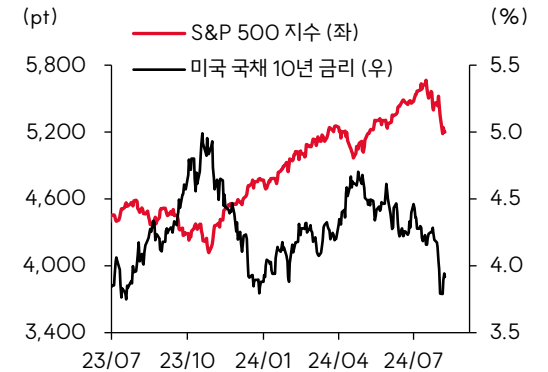


(4) 신용



자산가격

(1) 금리 vs 주식



(2) 원자재 vs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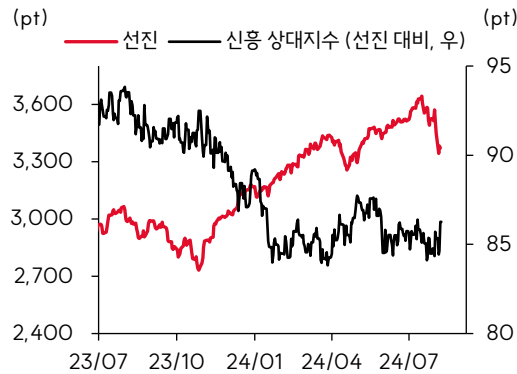


4. 글로벌 주식시장: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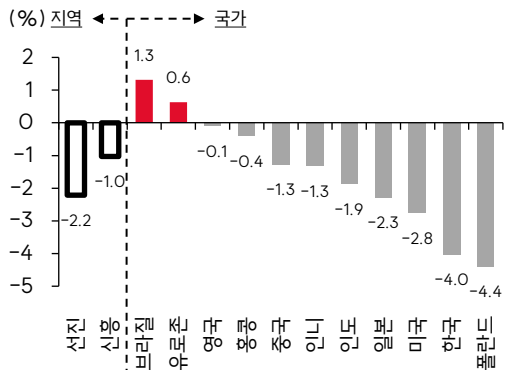
- 폴란드, 한국 등 일부 신흥국 국가 증시가 크게 하락했지만 중국, 인도 등이 미국 대비 선방했기에 선진 증시가 신흥 대비 언더퍼폼. 미국은 IT가 크게 무너지면서 부진한 성과를 기록. IT의 급락은 글로벌 공통적인 현상이었음
- 이로써 미국 증시를 봤을 때 6월 이후 진행되었던 성장의 가치 대비 과도했던 아웃퍼폼은 모두 되돌림

주식: 지역/국가

(1) 글로벌 증시 추이 및 선진 vs 신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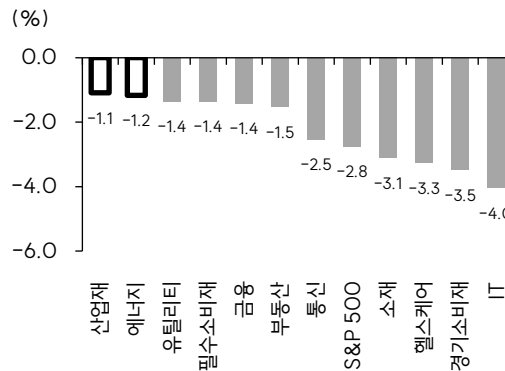


(2) 국가별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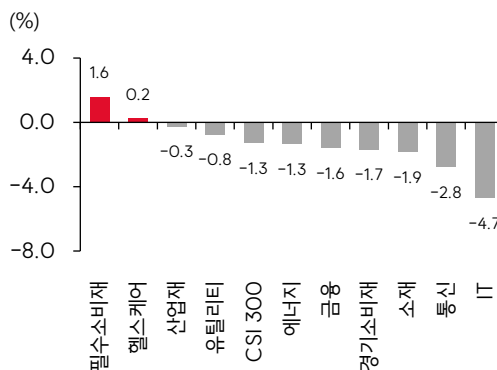


주식: 섹터

(1) 미국 S&P 500 주간 섹터별 수익률



(2) 중국 CSI 300 주간 섹터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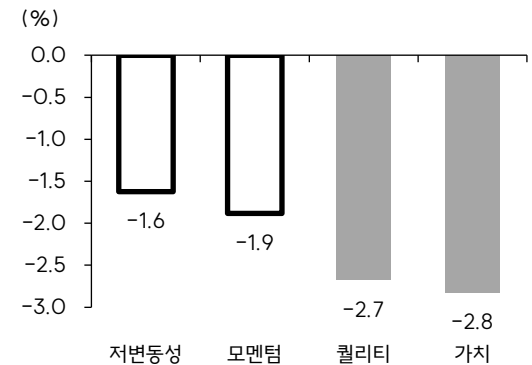


주식: 스타일

(1) 미국 및 신흥 증시: 성장 vs 가치



(2) 스타일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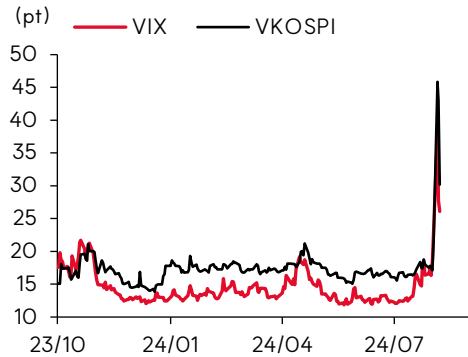


5. 글로벌 주식시장: 심리와 기술적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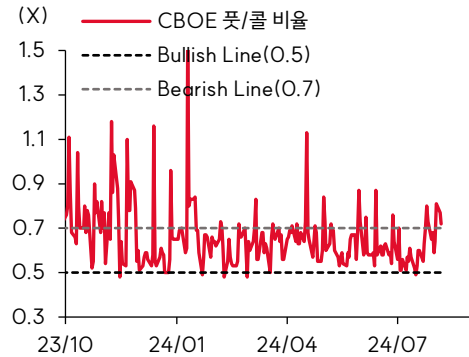
- 극단적으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관찰. VIX는 장중에는 60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으며 CBOE 풋/콜 비율은 Bearish Line을 상회
- 그 결과 RSI 등 기술적 지표 상으로 증시는 과매도권에 진입. 특히 국내 증시는 월요일 역사적으로 큰 하락률을 기록하며 완벽히 과매도권에 진입했다는 시그널이 발생하기도 했음

심리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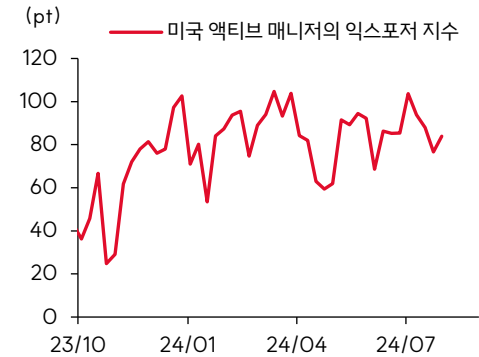
(1) 변동성 지수: 미국 vs 한국



(2) 미국 개별 주식 옵션 거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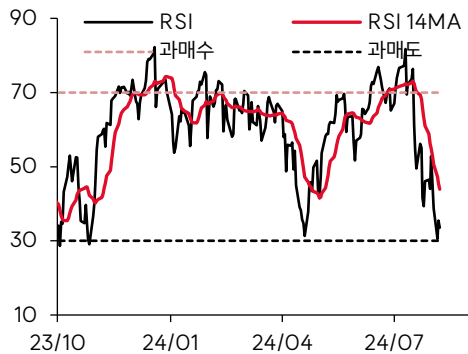


(3) 미국 액티브 매니저 서베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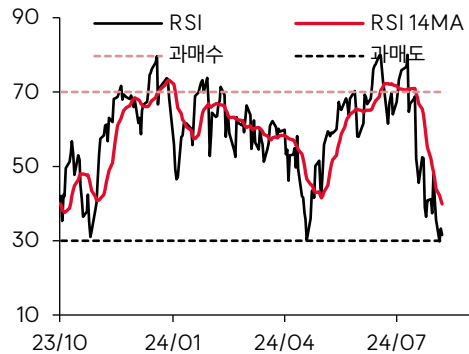


기술적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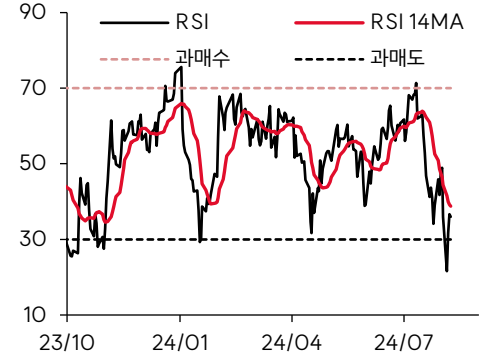
(1) RSI: 미국 S&P 500



(2) RSI: 미국 나스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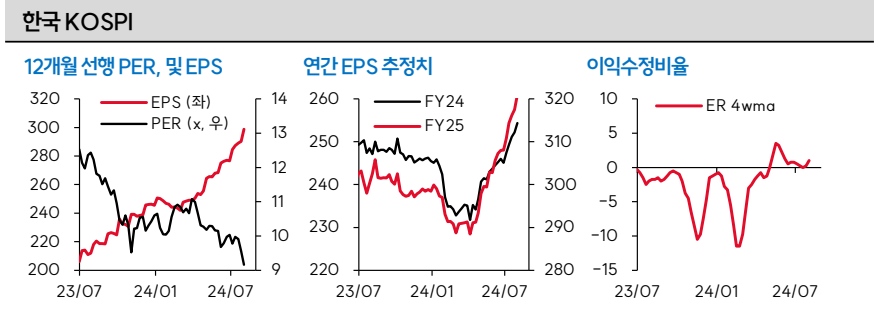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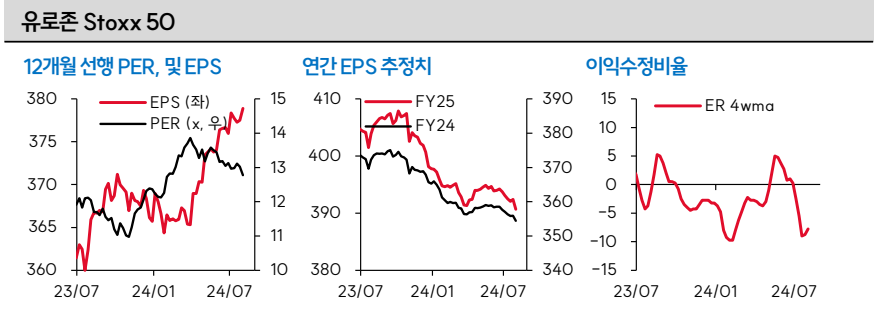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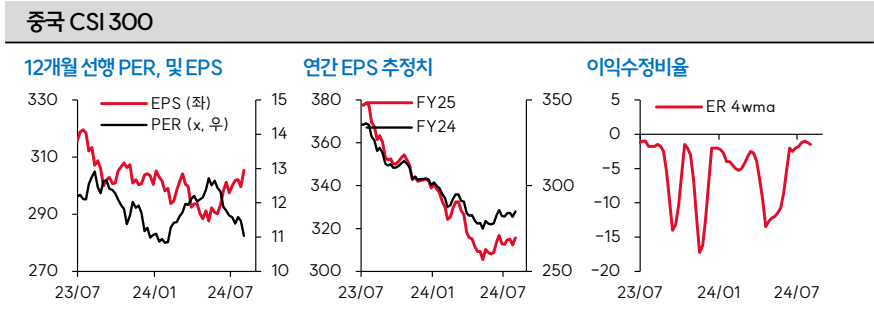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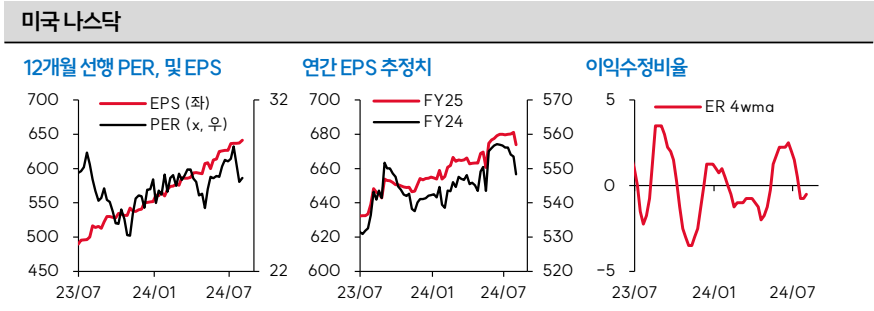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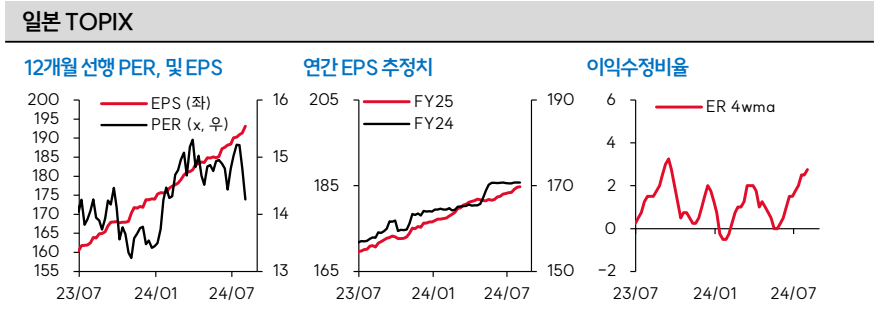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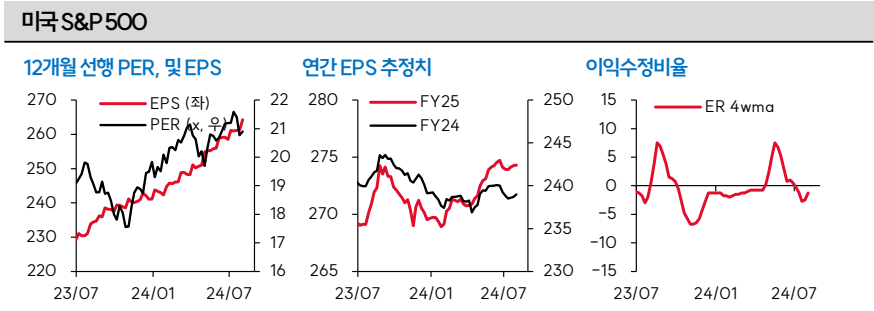


(3) RSI: 한국 KOSPI



6. 글로벌 주식시장: 이익과 밸류에이션

- 미국 기술주의 명백한 이익 모멘텀 둔화가 관찰되고 있음. 유럽 증시 이익 모멘텀 부진 지속되는 중
- 그러나 미국 S&P 500, 일본, 중국, 한국 증시의 이익 추정치는 상향 조정 이어 나가고 있음. 과도한 낙폭 회복 이후의 증시 주도 국가 내지는 스타일 관련해서는 이익 추정치의 개선 여부를 잘 살펴 보아야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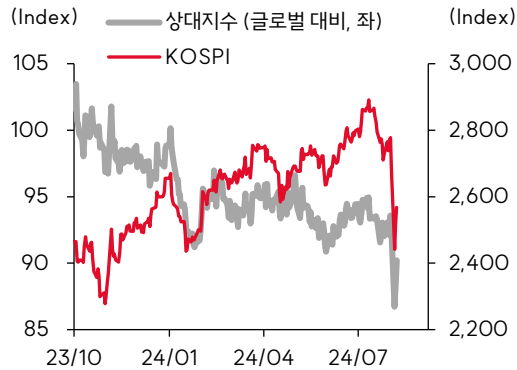


7. 국내 주식시장: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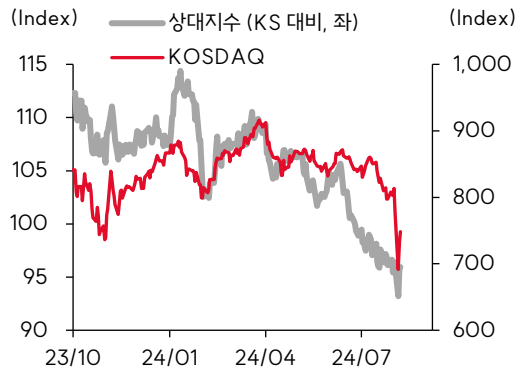
- KOSPI 지수는 역사적 폭락을 경험. 5일 하락률은 KOSPI 지수 산출되기 시작한 1980년 이래로 6번째로 높은 것이었음. 이보다 하락률이 컸던 때는 금융위기, IMF, 9/11 테러 발생일
- 화장품 섹터 낙폭이 가장 컸는데, 이는 최근 글로벌 증시 하락과 별개로 기업 이익 부진 때문. 아모레퍼시픽 주가가 어닝 쇼크 및 부정적인 컨콜 내용 때문에 폭락
- 외국인의 국내 증시 바스켓 매도가 컸기 때문에 2차전지, 반도체 섹터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했음. 중소형주가 대형주 대비 아웃퍼폼

시장

(1) KOSPI 지수 (+ 글로벌 증시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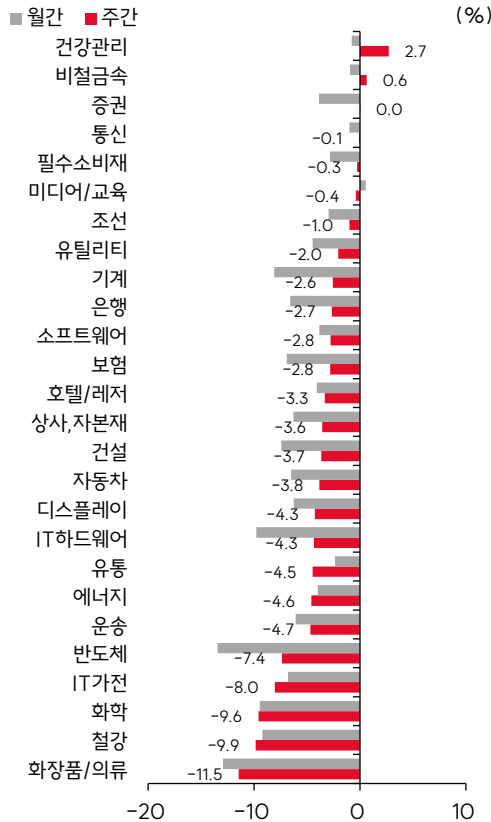


(2) KOSDAQ 지수 (+ KOSPI 지수 대비)



섹터

KOSPI 섹터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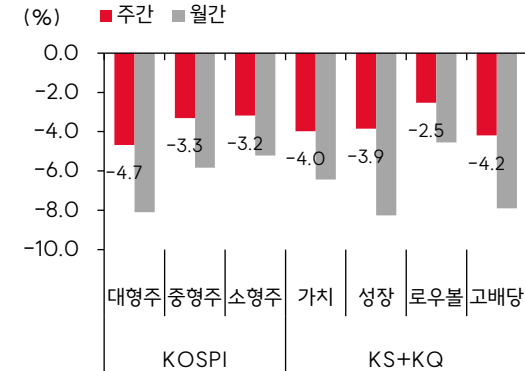


스타일

(1) 성장 vs 가치



(2) 스타일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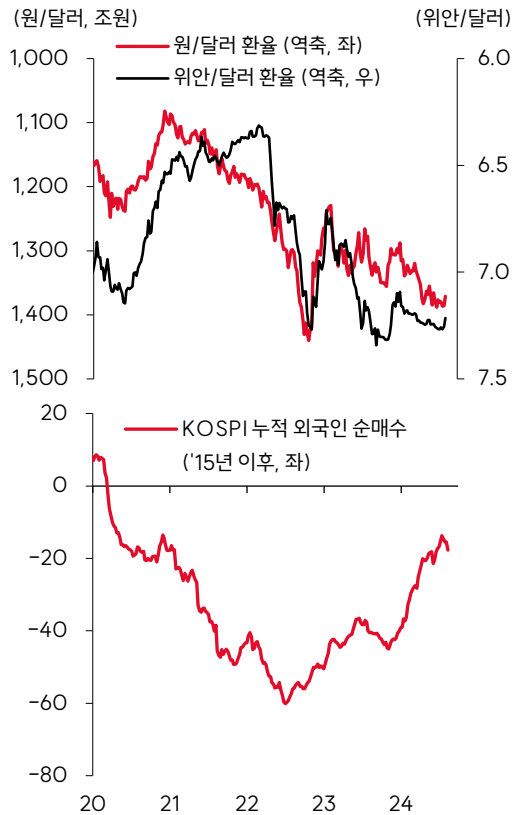


8. 국내 주식시장: 수급

- 이번에 외국인의 현물 매도 규모는 작년 매도 구간을 고려하면 그렇게 컸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신 이번에는 급격하게 선물 매도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단기간 내 프로그램 매도 규모가 컸기에 증시 급락을 촉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 그 와중에도 외국인이 순매수한 섹터는 통신, IT하드웨어,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철강, 호텔/레저, 기계, 건강관리, 유통, 비철금속, 보험 등. 일단 방어적 섹터들을 매수했고 철강을 순매수한 것이 약간은 의외. 2차전지 하락에 의한 밸류에이션 매력 때문이라면 IT가전도 함께 매수 했어야 할 텐데 일단은 철강만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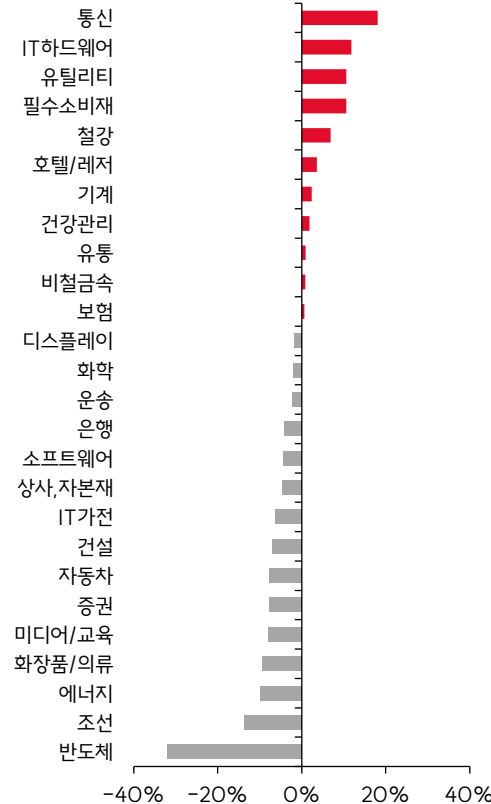
수급: 시장

KOSPI 외국인 순매수와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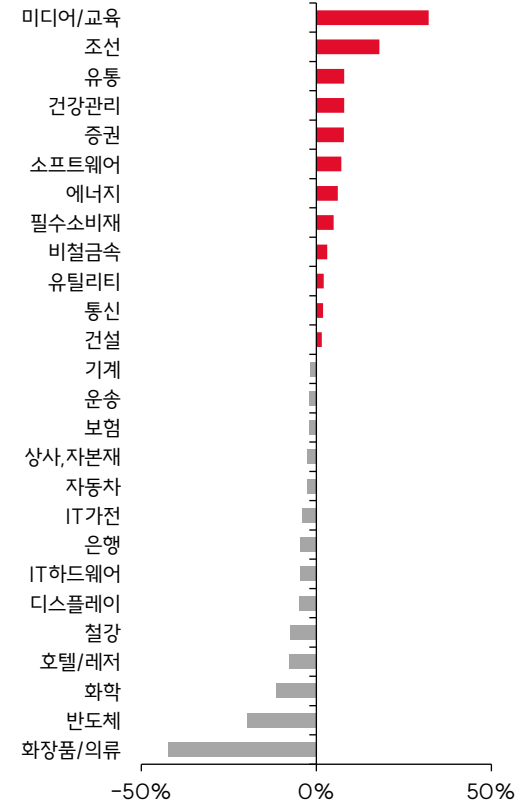


수급: 섹터

1) 주간 KOSPI 섹터별 외국인 순매수 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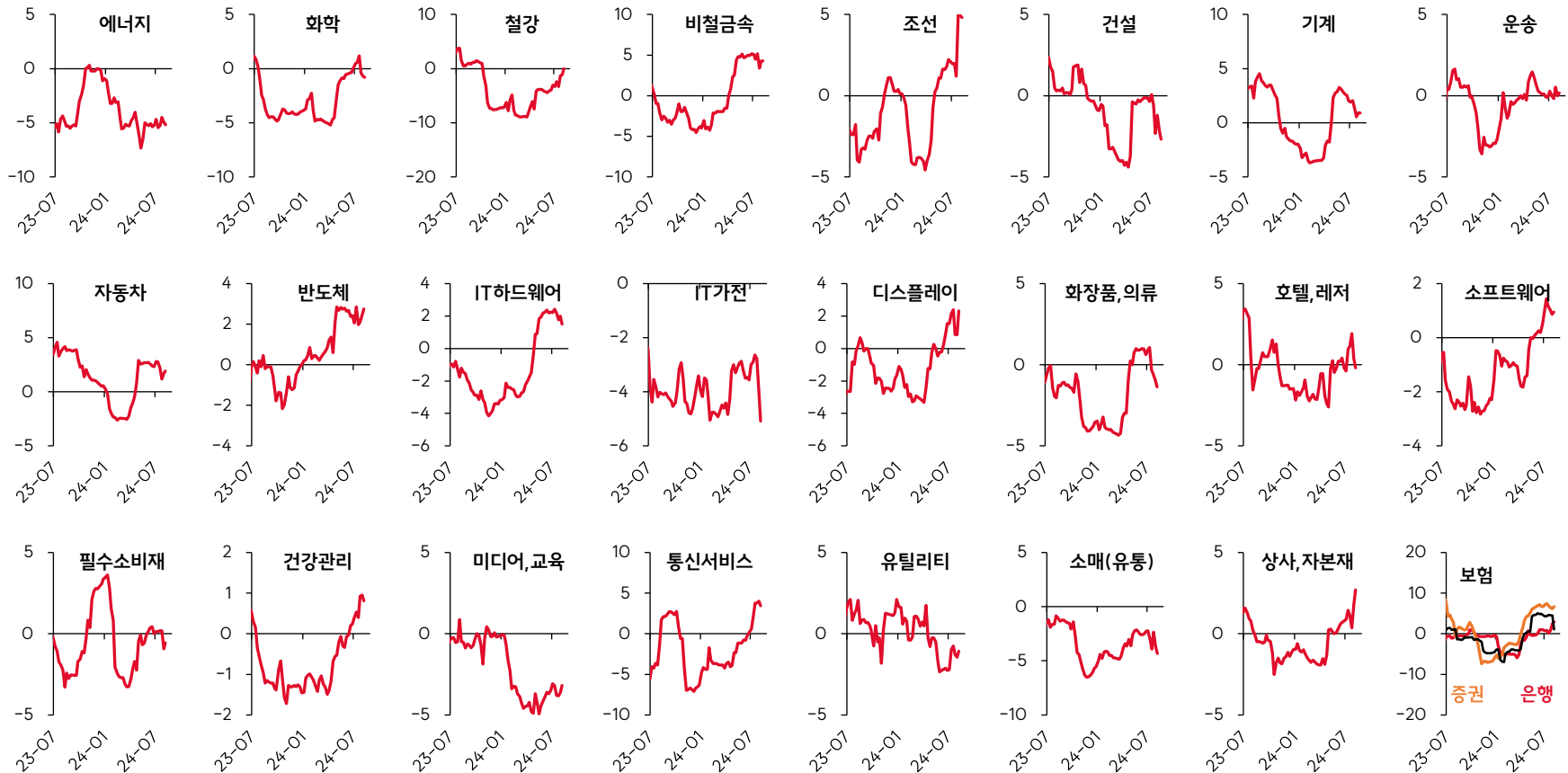
2) 주간 KOSPI 섹터별 기관 순매수 강도



9. 국내 주식시장: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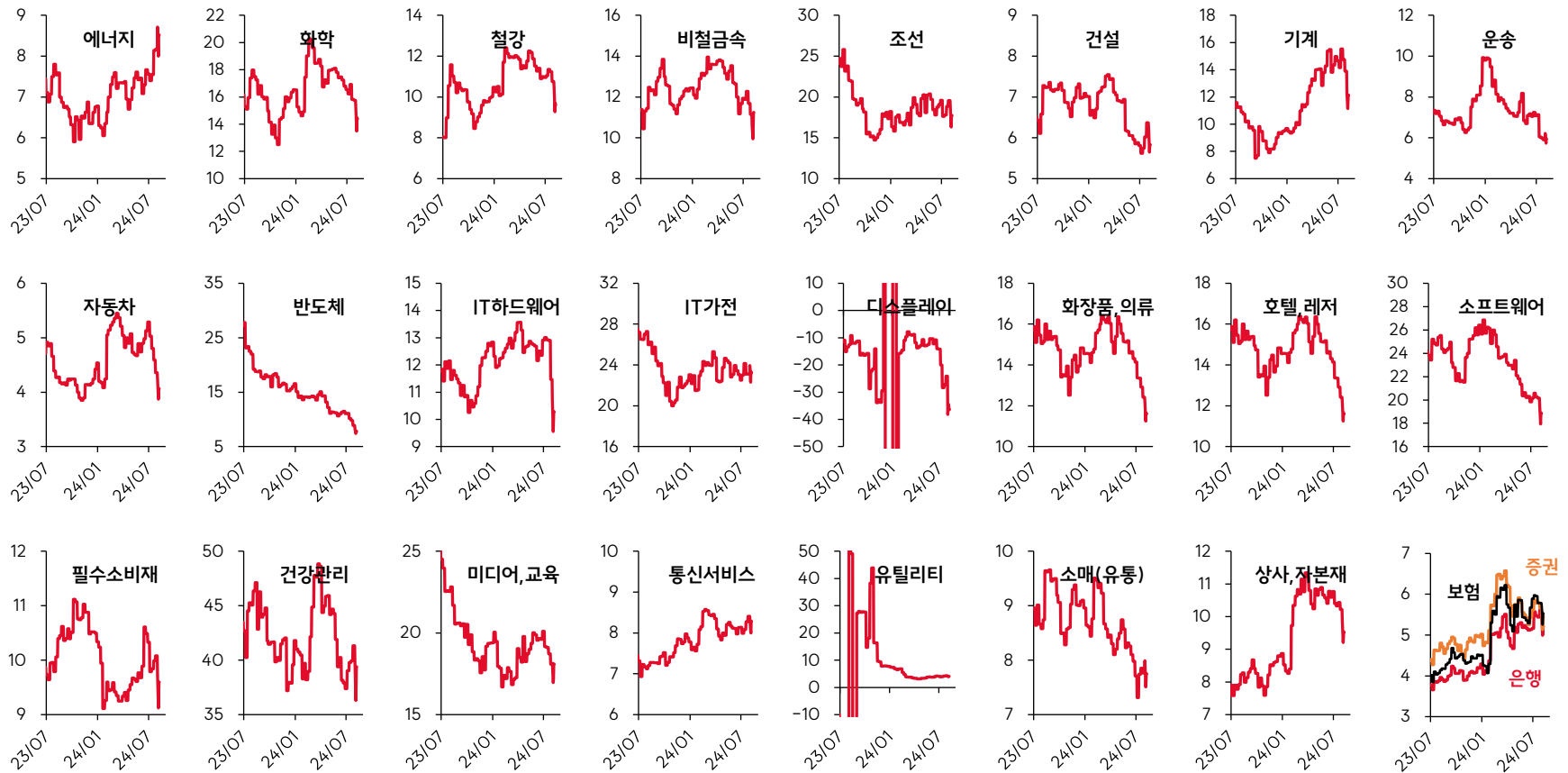
- 앞서 외국인의 철강 업종 순매수가 눈에 띄다고 언급했는데, 철강과 IT가전의 차이는 이익 모멘텀에 있는 것으로 보임. 철강 이익수정비율은 어느새 (+)권에 근접. 그러나 IT가전은 0 근처에 다가가지도 못한 채 재차 급락
- 조선 이익 모멘텀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중. 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도 마찬가지. 통신, 건강관리도 여전히 이익수정비율 상승 추세 유지 중. 최근 상사/자본재 섹터의 이익수정비율 가파른 반등이 눈에 띈

KOSPI 섹터별 이익수정비율 (%)



10-1. 국내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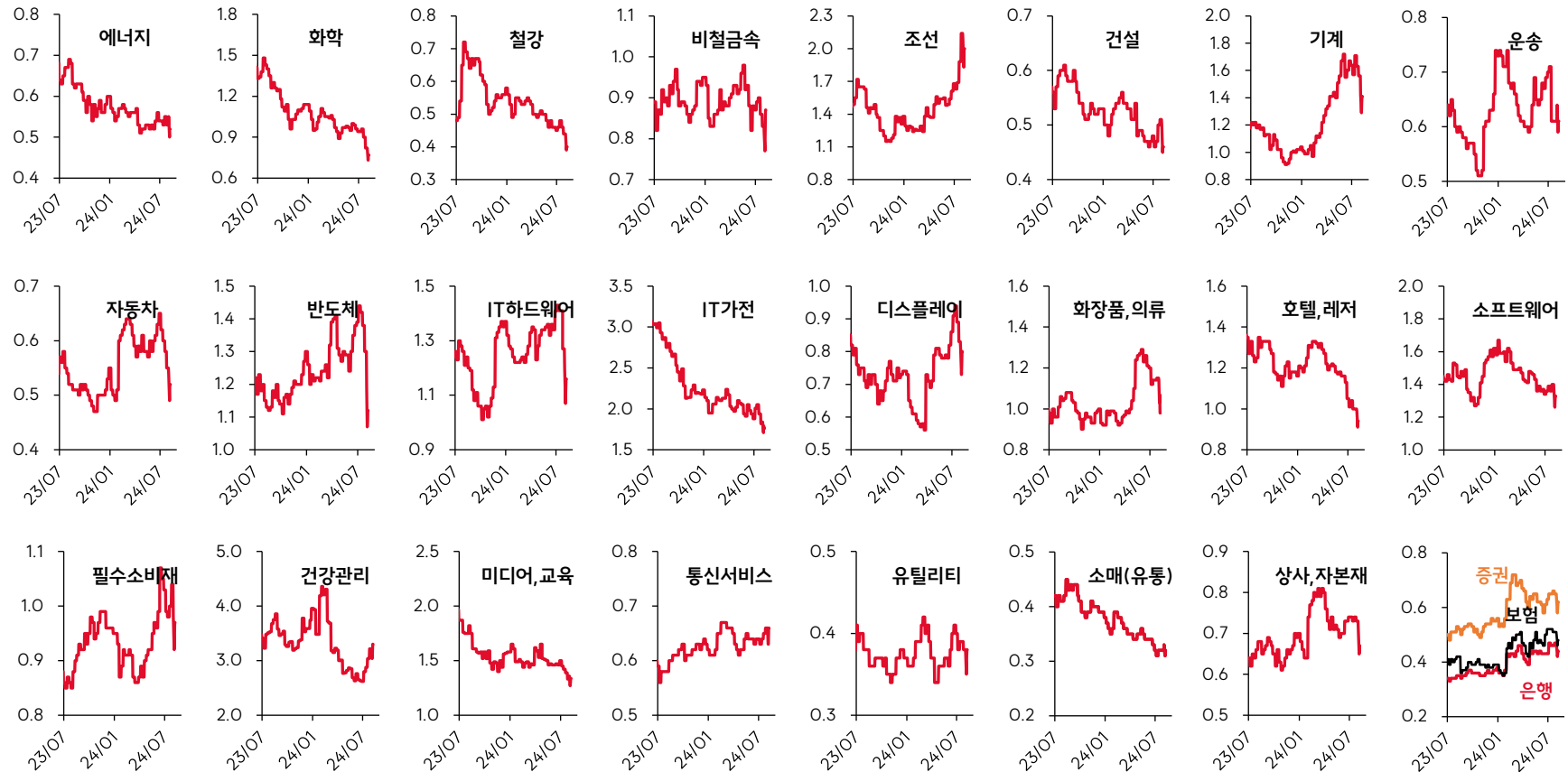
KOSPI 섹터별 12MF PER (X)



10-2. 국내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 이번 급락으로 모든 업종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크게 상승
- 2차전지 업종 밸류에이션은 바닥을 모르고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화학과 IT가전의 경우 이익 모멘텀이 부진하다면 철강은 그 가운데서도 개선세를 이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눈 여겨 볼 만
- 최근 상사/자본재 섹터 이익 모멘텀 양호한 것에 비해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반기 대비 낮아졌음. 관심 다시 가져볼 만 하다는 판단

KOSPI 섹터별 12MF PBR (X)



11. 국내 주식시장: 종목

- 증시가 이토록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이고 외국인 수급이 부진하기에 이익 모멘텀과 수급 사이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발견하기는 어려움
- 다만 그 가운데서도 이익 모멘텀 스코어가 높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선호하는 종목이 있다면 이는 단연 삼성바이오로직스일 것. 두산에너지빌리티와 대상도 눈 여겨 볼 만 함
- 기관은 조선, 증권, 헬스케어 업종 중 이익 모멘텀 양호한 종목들에 관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KOSPI 200 주간 종목 동향: 이익 모멘텀 상위

순위	종목코드	종목명	섹터	시총 (조원)	12m fwd. EPS (x)	투자 의견	목표주가 (원)		이익수정비율 (%)		주가 수익률 (%)			수급주체별 주간 순매수강도: 코스피 종목 내 백분율 (높을수록 수급 강함)		
							현재	-1W	현재	-1W	1W	1M	YTD	외국인	기관	개인
1	A267260	HD현대일렉트릭	기계	10.31	20.29	매수	440,909	440,909	81.8	81.8	-10.8	-10.9	247.9	22%	8%	87%
2	A105560	KB금융	은행	33.17	6.37	매수	107,556	107,556	77.8	77.8	-6.9	-5.4	51.9	17%	5%	93%
3	A009540	HD한국조선해양	조선	14.54	10.16	매수	201,200	194,200	45.5	36.4	-3.5	28.4	70.0	7%	98%	3%
4	A010620	HD현대미포	조선	4.45	31.44	매수	115,462	112,385	38.5	30.8	-7.3	14.9	31.1	9%	97%	21%
5	A280360	롯데웰푸드	필수소비재	1.47	12.11	매수	211,250	211,250	50.0	50.0	-10.3	-8.6	25.7	56%	64%	43%
6	A005940	NH투자증권	증권	4.39	6.15	매수	16,036	16,036	58.3	58.3	-5.4	2.6	29.7	17%	90%	30%
7	A207940	삼성바이오로직스	건강관리	69.32	53.96	매수	1,050,000	1,024,737	73.3	37.5	5.3	23.0	28.2	100%	93%	0%
8	A016360	삼성증권	증권	3.80	5.09	매수	52,286	52,286	69.2	69.2	-6.7	-1.2	10.7	18%	89%	34%
9	A066570	LG전자	IT가전	15.40	8.91	매수	142,381	142,381	52.4	42.9	-9.3	-13.1	-7.6	3%	7%	97%
10	A042700	한미반도체	반도체	10.17	40.25	매수	220,000	220,000	40.0	40.0	-17.6	-35.5	70.0	96%	51%	3%
11	A120110	코오롱인더	화학	0.95	6.17	매수	61,400	61,400	40.0	40.0	-8.5	-6.4	-22.7	67%	29%	64%
12	A329180	HD현대중공업	조선	19.17	28.36	매수	190,615	186,769	23.1	15.4	0.9	42.1	67.4	7%	97%	24%
13	A000270	기아	자동차	40.63	4.43	매수	158,125	158,125	50.0	50.0	-9.4	-18.2	1.6	2%	96%	98%
14	A003230	삼양식품	필수소비재	4.41	16.98	매수	696,667	696,667	22.2	22.2	-4.9	-2.8	171.3	91%	33%	17%
15	A039490	키움증권	증권	3.21	4.47	매수	160,929	160,929	46.2	46.2	-7.4	-8.0	26.3	23%	80%	43%
16	A034020	두산에너지빌리티	기계	11.24	22.45	매수	26,667	26,667	16.7	16.7	-6.3	-16.5	10.3	92%	66%	9%
17	A032350	롯데관광개발	호텔, 레저서비스	0.66	-53.21	매수	17,875	17,875	40.0	40.0	-10.3	-11.4	-7.1	64%	60%	39%
18	A001680	대상	필수소비재	0.81	7.62	매수	33,000	33,000	25.0	25.0	-2.7	-11.3	12.1	62%	69%	32%
19	A204320	HL만도	자동차	1.62	6.55	매수	55,333	55,333	11.1	11.1	-10.8	-17.6	-12.2	81%	26%	38%
20	A006260	LS	기계	3.31	9.15	매수	198,750	198,750	12.5	12.5	-14.4	-23.7	10.2	43%	85%	19%

주: 코스피 200 지수 내 투자 의견 중립 이상 종목 중 1. 이익수정비율(1M) 레벨 높고, 2. 이익수정비율(1M) 전주대비 개선된 폭 높고, 3. 목표주가 상향률(1M) 높은 종목 순)

자료: SK증권



Part 3.

**주간
Check Poin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주간 경제 캘린더

SK증권 리서치센터

날짜	국가	지표	실제	예상	이전
8/5 (월)	미국	ISM 서비스업 PMI (pt) (7월)	51.4	51.0	48.8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pt) (7월)	55.0	56.0	55.3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pt) (7월)	52.1	50.6	51.2
	유로존	HCOB 서비스업 PMI (pt) (7월)	51.9	51.9	52.8
	독일	HCOB 서비스업 PMI (pt) (7월)	52.5	52.0	53.1
8/6 (화)	미국	무역수지 (십억달러) (6월)	-73.1	-72.5	-75.0
	호주	RBA 통화정책회의 (%) (8월)	4.35	4.35	4.35
	유로존	소매판매 (MoM%) (6월)	-0.3	0.5	0.1
8/7 (수)	중국	수출 (YoY%) (7월)	7.0	9.7	8.6
	중국	무역수지 (십억달러) (7월)	84.7	99.0	99.1
	독일	산업생산 (MoM%) (6월)	1.4	1.0	-3.1
	한국	경상수지 (십억달러) (6월)	12.3		8.9
8/8 (목)	인도	RBI 통화정책회의 (%) (8월)	6.50		6.50
8/9 (금)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YoY%) (7월)		0.4	0.2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MoM%) (7월)			-0.2
	중국	생산자물가지수 (YoY%) (7월)		0.9	-0.8
	독일	소비자물가지수(확) (YoY%) (7월)			2.2

날짜	국가	지표	예상	이전
8/12 (월)	중국	신규위안화대출·사회용자총액 (십억위안) (7월)		2130 3300
8/13 (화)	미국	헤드라인·근원 생산자물가지수 (YoY%) (7월)		2.6 3.0
	미국	헤드라인·근원 생산자물가지수 (MoM%) (7월)		0.2 0.4
	미국	NFIB 소기업 낙관지수 (pt) (7월)		91.5
8/14 (수)	미국	헤드라인·근원 소비자물가지수 (YoY%) (7월)	3.0 3.3	3.0 3.3
	미국	헤드라인·근원 소비자물가지수 (MoM%) (7월)	0.2 0.3	-0.1 0.1
	유로존	실질 GDP(잠) (YoY%) (2Q)	0.6	0.5
	영국	헤드라인·근원 소비자물가지수 (YoY%) (7월)		2.0 3.5
8/15 (목)	한국	실업률 (%) (7월)		2.8
	미국	산업생산·소매판매 (MoM%) (7월)	0.2 -0.1	0.6 0.0
	미국	산업생산·소매판매 (YoY%) (7월)	1.1 1.8	1.6 2.3
	미국	제조업 생산·근원 소매판매 (MoM%) (7월)	-0.1 0.2	0.4 0.4
	미국	필라델피아연은 제조업활동지수 (pt) (8월)		13.9
	미국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활동지수 (pt) (8월)		-6.6
	중국	산업생산·소매판매 (YoY%) (7월)		5.3 2.0
	중국	실업률 (%) (7월)		5.0
	중국	주택가격지수 (YoY%) (7월)		-4.5
	일본	실질 GDP(속) (QoQ연율%) (2Q)	2.1	-2.0
영국	실질 GDP(속) (YoY%) (2Q)		0.3	
8/16 (금)	미국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속) (%) (8월)		2.9
	미국	미시간대 5년 기대인플레이(속) (%) (8월)		3.0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속) (pt) (8월)		66.4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기대지수(속) (pt) (8월)		68.8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평가지수(속) (pt) (8월)		62.7
	미국	건축허가·주택착공 (MoM%) (7월)		3.9 3.0

일정	8월 1주	[월] 실적(버크셔해서웨이, 팔란티어) [화] 실적(아람코, 암젠, 캐터필러, 우버, 에어비앤비, SMCI) [수] 실적(노보노디스크, 디즈니, 쇼피파이) [목] 실적(일라이릴리, 소니)
	8월 2주	[월] OPEC 월간 보고서 [화] 보스틱 연설, 실적(홈디포) [수] 실적(텐센트, 시스코, 폭스콘) [목] 하커 연설, 휴장(한국, 인도), 실적(월마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디어)